

金文輯의 『여자 조리와 내 청춘 (女草履と僕の青春)』 고찰

- ‘나(私)’의 여자 조리(草履) 집착증을 중심으로 -

신윤주*
shin0613@deu.ac.kr

〈目次〉

- | | |
|--|--|
| 1. 서론 | 4.2 윤전기, 저널리즘, 저널리스트 비판
의식에 표상된 ‘나’의 집착 |
| 2. 선행연구 | 4.3 ‘여자 조리’에 대한 ‘나’의 집착 |
| 3. 1930년대 김문집과 탐미문학(耽美文學) | 4.3.1 옹희(蓉姬) |
| 4. 『여자조리와 내 청춘』에서 여자조리에
집착하고 있는 ‘나’ | 4.3.2 제2의 연인(第二の恋人) |
| 4.1 ‘나’의 야뇨증과 어머니의 부재 의미 | 5. 결론 |

主題語: 김문집(Kim Mun-jip), 야뇨증(Enuresis), 페티시(Fetish), 탐미파(Esthetes), 집착(Obsession)

1. 서론

김문집(金文輯, 1907.7.7~)의 작품집 『아리랑 고개(ありらん峠)』에 실린 9편¹⁾의 소설들은 모두 일본어로 쓰여 졌고, 대개 성(性)을 향한 도착적(倒錯的)이고 이상적(異常的)인 집착과 탐닉이라는 유사한 내용과 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 1939년 「국민신보」에 두 편의 일문소설

* 동의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1) 金文輯(1958)『ありらん峠』第二書房

①『아리랑고개(ありらん峠)』 ②『이모사(理毛師)』 ③『여자 조리와 내 청춘(女草履と僕の青春)』 ④『귀족(貴族)』 ⑤『그랜드 보헤미안 호텔(グランド・ボヘミアン・ホテル)』 ⑥『타이티의 환영-고갱에게 부치는 편지(タヒチの幻影-ゴーガンへの書簡)』 ⑦『일본적인 모습(日本姿)』 ⑧『소변과 영원의 여성들(小便と永遠の女性達)』 ⑨『맹목적인 사랑(四人這の戀)』의 총 9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한일 합방에서 공을 세운 귀족 자손들의 모임인 ‘낙양구락부(落陽俱樂部)’를 소재로 한 ④『귀족』, 러시아 외교관의 미망인인 조선 귀부인의 우울한 말년을 다룬 ⑤『그랜드 보헤미안 호텔』, 일본의 전통 사회와 문화의 독특한 아름다움, 특히 일본 여성들의 미를 에세이 풍으로 서술한 ⑦『일본적인 모습』, 이 세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소설들은 모두 성(性)을 향한 도착적이고 이상적(異常的)인 집착과 탐닉에 대한 서사로 묶을 수 있다.

『비화원(秘花園)』(1939.5.21/5.28자)과 『이별의 노래(別れの曲)』(1939.11.5./11.12자)가 실렸으며, 후에 『비화원』은 『여자 조리와 내 청춘(女草履と僕の青春)』, 『이별의 노래』는 『그랜드 보헤미안 호텔(グランド・ボヘミアン・ホテル)』로 개명되어 제이서방(第二書房)에서 나온 『아리랑 고개(ありらん峠)』 작품집에 수록되었다.²⁾ 논자는 2013년 5월 4일 김문집의 창작집 『아리랑 고개』에 수록된 첫 번째 작품 『아리랑 고개』에 대해 「日帝強占期 朝鮮人文學의 根底 考察-김문집의 『아리랑 고개(ありらん峠)』를 중심으로-」³⁾를 시작으로 김문집 작품 연구에 착상한 결과 김문집은 실제로 어머니 부재의 원인으로 인해 작품 대부분에 여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록된 첫 번째 작품 『아리랑 고개』는 중심인물 ‘나’가 ‘털(毛)’에 집착하는 형태로, 세 번째 작품 『여자 조리와 내 청춘』은 중심인물 ‘나’가 ‘여자 조리’에 집착한다.

김문집이 『아리랑 고개』 창작집을 출간했을 때, 한국 문단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황경은 「김문집은 스스로 자칭했던 탐미주의자로서의 소설 쓰기를 의도하고 또 추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 분석에서 드러나겠지만, 창작집 『아리랑 고개』에 실린 소설들은 실제적으로 그가 추앙했던 탐미주의 문학의 논리와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⁴⁾고 논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문집 자신의 해명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어린 시절부터 계모와의 불화로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유랑하는 삶을 전전해야 했다고 하는 내용과 아버지가 양반 가문 출신의 혈족, 제국대학 최고학부에서 수학하였다는 최종 학력,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사랑 기갈증(飢渴症)이 그의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본성과 복잡한 내면 의식의 형질이 작품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에 대해 『여자 조리와 내 청춘』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문단에서 비평가로서의 김문집의 행적들을 추적해가면서 왜 ‘나’가 조리(草履)에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황경(2012)「김문집의 일본어소설 연구-『아리랑 고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제39집, p.78

3) 신윤주(2014)「김문집의 『아리랑 고개(ありらん峠)』 고찰-‘나(私)’의 도모증(盜毛症)을 중심으로-」 『일본 근대학연구』제43집, pp.70-171

털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라는 의미에서 ‘나’의 도모증은 결국 평범하지 못한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원망과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부모의 부재에 대한 공허함이 주원인으로 보여진다. 또한 ‘나’에게 아버지는 조국의 상실이라는 당시 일제강점기 식민지로, 어머니는 사랑받아야 할 인간의 근본적 주체의 상실로 은유되어 있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식민지적 환상으로 가는 지름길을 여는 것은 공포와 페티시로서 그 같은 정형의 기능」이라고 서술한 것처럼 피억압자 ‘나’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와 가족을 잃은 고아라는 현실에 대해 스스로 위로 받고 싶었으며, 식민지 사회라는 공간 장치 속에서 공포와 분노를 페티시적 외상적증후로 일제강점기 식민지라는 시대가 낳은 한 인간군상이라고 생각된다.

4) 주1과 동일, p.78 참조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는 사실상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문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했음을 밝혀둔다.⁵⁾ 김문집이 일문 창작집 『아리랑 고개』를 출간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논자들이 언급한 바 있지만, 그의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는 없으며, 본 연구와 관련 『여자 조리와 내 청춘』 작품 번역은 물론이고 관련 선행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김문집의 일본어 작품에 대한 번역본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향후 번역 작업과 함께 연구가 진행된다면 일제강점기 조선인 문학 일반에 근저한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해석이 기대된다. 또한 김문집이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영향력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탐미주의 문학을 구축하게 될 인문학내에서의 문화담론을 활성화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방법론적 패러다임으로서, 향후 김문집 연구에 힘을 실어 줄 것이며, 이를 응용, 적용함으로써 일종의 로드맵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문학과 관련하여 김문집의 『비평원전(批評文學)』⁶⁾을 해독하며 그의 흔적을 추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김문집을 연구하기에 앞서 평론, 비평가로서의 자료가 중요한 만큼 비평문학과 연계하여 논문 진행에 착수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식민지 일본어 문학·문화 연구회>(책임자 정병호)를 중심으로 한국의 이중언어문학(친일문학) 및 일제강점기 일본어 문학 연구자, 일본의 근대문학 및 <외지> 일본어 문학 연구자, 중국의 식민지 문학 연구자, 대만의 식민지문학 연구자, 미국의 일본 디아스포라문학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식민지문학을 제국일본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제국일본의 이동과 동아시아 식민지문학』이 있다.⁷⁾ 아울러

5) 정병호(2006) 「20세기 초기 일본의 제국주의와 한국 내 <일본문학>의 형성 연구-잡지『조선』(朝鮮, 1908-11)의 「문예」란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第37輯, p.410

한국의 국문학계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한반도 내 이러한 일본어 문학작품의 존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인 작가의 일본어문학과 이들의 이중어 글쓰기 행위이며 시기적으로도 그 대부분이 한반도 내에서 황국신민화 정책이 강화되고 한글사용이 금지되었던 1930년대 이후 일제 말기의 문학적 상황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의 한반도에는 한국인 작가가 쓴 일본어문학뿐만 아니라,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일본어문학이 간행되어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문잡지 등의 「문예」란에 실린 일본어 작품이다.

구수경(2003) 『1930년대 소설의 서사기법과 근대성』 국학자료원, p.270

김문집의 문학에 대한 관심과 체험이 처음에는 비평이 아닌 창작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어, 한국문학이 아닌 일본어, 일본문학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실들은 그의 비평관 및 비평방법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6) 金文輯(1938) 『批評文學』靑色紙社

김윤식과 김재용 역시 일본어 글쓰기 내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작품 내용에 따라 협력과 저항의 내적 논리를 따지고 친일문학의 정도와 여부를 가늠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⁸⁾

3. 1930년대 김문집과 탐미문학(耽美文學)

김문집에게 노비문서처럼 따라다니는 친일 부역자라는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형구는 김문집의 혐구와 독설로 마냥 치장된 그 비평 행위들을 단순한 호사 취미로 벗겨 내고자 하는 의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며, 흥미롭기는 하지만 단순한 학적 취미로 우리의 비평사가 채색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김문집 비평의 역사적, 문화사적 위상을 결코 최재서⁹⁾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국 탐미주의 비평의 한 사례, 역사적 기원의 족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김문집의 한국 탐미주의 비평의 한 사례, 역사적 기원의 족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¹⁰⁾

당시 젊은 세대의 눈으로 보서는 일본 현대 문학의 최고 수준을 대변한다고 인식되었던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나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雄) 등과 함께 당시 모든 소설가 지망생들이 추앙해 마지않았던 요코미쓰 리이치(横光利一)와 같은 작가와 더불어 문학의 문제를 논해 왔다는 사실은 그가 거칠 데 없는 자부심을 피력했다. 김문집의 『비평문학(批評文

7) 식민지 일본어문학.문화연구회(2011)『제국일본의 이동과 동아시아 식민지문학1,2』문

8) 김윤식(2003)『일제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 김재용(2004)『협력과 저항』소명출판

9) 최재서 저, 이해진 옮김(2012)『최재서 소설집』소명출판

최재서(1908-1964) : 문학평론가·영문학자.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호는 석경우. 필명은 학수리·상수시이다. 1931년 경성제국대학 영문과를 거쳐, 1933년 경성제국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그 뒤 모교 강사 및 보성전문학교·법학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광복 이후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원장, 한양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흄(Hulme, T.E.)·엘리어트·리드·리처즈 등의 문학이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영문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비평 방법과 태도는 한국 문학사에서 비평의 학문화의 모델, 또는 강단비평(講壇批評)의 원조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문학을 이데올로기의 전파 수단으로 보거나 또는 작가와 작품을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설명하려는 이른바 프로비평의 태도를 뛰어넘기 위하여 신고전주의를 중심으로 한 주지주의문학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당시의 한국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한 평가와 해석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비평가로서도 유명했다. 그러나 친일문학단체인 조선문인협회의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일본어로 친일적인 평론을 다수 발표하기도 하는 등의 친일 행적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편찬위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김문집 연구를 폭넓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최재서와의 연관관계 역시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

10) 한형구(2011)「한국 탐미(주의) 비평의 한 사례-1930년대 후반 김문집 비평의 문단 위상과 그 미적 이론의 형성 배경-」『어문논집』제47집, p.344 참조

學)』 「제3부 ACADEMY」¹¹⁾에서 근대적 예술 정신을 한 핵자를 악마주의로 파악, 그 세부 심리적 양태로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거론, 예거하는 과정에서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사례를 끼워 넣어 해설해 보이고 있는 문맥 등은 그가 이 시기 나름대로 서양 문화, 예술사에 대한 지식을 충동원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 문단에 대한 그의 이해의 정통함을 은근히 과시함으로써 일본 문단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조선 내 위치를 확고히 하려 했던 전략 같은 것이 작용한 문면으로도 볼 수 있으며 다니자키 준이치로에 대한 그의 경모(敬慕), 경외(敬畏)의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 보아도 좋다.¹²⁾

현대 일본문학에 통한 이는 누구나 알겠지마는 일본 문단이 가진 최고의 예술가-적어도 그 하나인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예술은 악마주의의 예술이고 그 중에도 마조히즘에 속한 그것이다.¹³⁾

홍성암은 「김문집은 스스로를 탐미주의자로 자처하고 비평에 있어서 인상주의, 창조비평, 예술비평의 태도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일관되고 체계화 된 양상은 아니다」¹⁴⁾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의 문학적 근거(根柢)는 탐미주의적 문학 이론들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근대 또는 일본에 이식된 서구의 근대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났던 조선의 청년들이 최남선과 이광수로 대표되는 문명개화, 계몽의 근대를 배워왔다면, 김문집은 ‘미(美)’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탐미적 예술지상주의를 품고 왔으며, 그것이 바로 작품 『아리랑고개』, 『여자 조리와 내 청춘』에 여성과 관련한 도모증(盜毛症)과 도벽증(盜癖症)과 같은 집착증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1) 金文輯(1938)『批評文學』靑色紙社, pp.155-260 참조

<제1부 문학비평>-언어와 문학개성, 문단원리론, 생각과 느낌, 복부(腹部)의 예술과 요부(腰部)의 예술, 역사와 예술, 신판옥중화(新刊獄中花), 「날개」의 시학적 재비평, 현기(衍氣, 衍奇)와 예언, 파토스와 작가의 눈, 민속적전류에의 방향, 비평예술론, <제2부 비평예술>-규슈4인방, 괴재(怪才)뽀.이마르세, 상허유망론(尙虛有望論), 장미(薔薇)의 병리학, 야앵출발사(夜櫻出發詞), 판결예문학론, <제3부 ACADEMY>-어휘와 언어미와 화문학(和文學)의 고금(古今), 전통과 기공문제, 삼차원문학원론, LOS VON DER NATUR, 함렛트 시비(是非), 비평방법론, 로당조각의 근대적 악마주의 미적연구「코빠진사나이」와 「빨작크像」, 행동주의문학해석, 조선문예학의 미학적수립론, <제4부 문예춘추>-산론설(散論說), 시학, 화자(花者)의 기원, 측간학(廁間學), 윤필고(潤筆考), 감각의 고차성, 취미의 폐단티시즘, NEUESACHLICHKEIT, 회담의 추억, 영원의 불행, 세잔느무정, <제5부 산문예술>-반쪽의 철학, PROMENADE, 의상의 고현학:1막의 문명비평, "SOUVENIR", <제6부 문예시평>-채점비평, 신희평론설, 여류작가의 성적귀환론:화성을 논평하면서, 조선관 여류구미론:김말봉을 평함, 문단주류설 재비판평론의 열병성을 통석하면서, <제7부 문단시론>-김유정, 한글과 한글문단, 『느낌』없는 문단, 예술이나? 자살이나?, 평단파괴의 긴급성:신문학 예면의 문제, 발(跋)/이광수, 색인.

12) 한형구(2011)「한국 탐미(주의) 비평의 한 사례 -1930년대 후반 김문집 비평의 문단 위상과 그 미적 이론의 형성 배경-」『어문논집』제47집, pp.362-363 참조

13) 金文輯(1938)『批評文學』靑色紙社 p.222

14) 홍성암(1994)『金文輯 批評 研究 -『批評文學』을 중심으로-』『동대논집』제24집, p.45 참조

4. 『여자 조리와 내 청춘』에서 여자 조리에 집착하고 있는 ‘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문집의 일본어로 쓴 첫 창작집에 실린 아홉 편의 소설은 대개 유사한 내용과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첫 작품 『아리랑 고개』는 매우 특이하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성의 ‘털(毛)’을 수집하는 조선인 청년의 자기 고백적 서사이며, 『여자 조리와 내 청춘』 역시 여성의 조리(草履)를 수집하는 조선인 청년의 자기 고백적 서사라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김문집의 작품 분석은 특히 1900년에서 한일 강제병합 이전까지의 근대화가 수립운동과 문명개화운동, 일제하 서구 근대철학의 수용, 조선민중교육 등의 성격과 특징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을 다시금 검토할 수 있다. 한국 근대화의 역사는 일본을 통해 서구 근대 문명을 수용한 측면이 컸다. 이에 한국 근대화의 역사는 일본에 의해 이식된 근대화 과정이 맞물려 일본 자국에서 진행된 근대화 과정을 조선과 연계시켜 식민지 시기의 이중 언어가 가능했던 작가들 특히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로 작품을 쓴 작가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작업은 의미가 크다. 이는 식민지 시기의 조선에 이식된 근대화의 성격뿐만 아니라 조선인 문학자들의 인식변화를 간파하는 작업이다. 그 과정에서, 김문집은 왜 우리의 근대화 과정이 결국 일본에 종속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 속에서 아무리 서툰 조선어라 하더라도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로 작품을 썼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본 고에서 다루게 될 작품 『여자 조리와 내 청춘』을 비롯한 김문집의 집착증과 같은 정신적 이상 이력이 작품 속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김문집 작품 전반적인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4.1 ‘나’의 야뇨증과 어머니의 부재 의미

작품은 유치장에 있는 ‘나’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동물들과 다름없는 인간들이 우르르 함께 모여 있는 냄새 나는 장소 유치장에서 ‘나’의 가장 큰 불안은 생리적인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나’는 이 유치장 안에서 답답함, 빈약함, 무엇보다 비위생성을 지적하며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기까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무엇보다 ‘나’는 입체의 고독을 느끼며 폐쇄된 공간 유치장에 있다는 것에 대한 상당히 불안 증세를 느끼기도 한다.

태어나서 만 1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야뇨를 했다는 기록이 없다. 더구나

몽정과 같이 상상외의 일. 일찍부터 기저귀에 소변이 새어나오지 않고 끝난 것은 내가 우리 유모를 기쁘게 한 성능의 하나 일 뿐만 아니라, 후일 오히려 그녀에게 추억을 갖게 한 재료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 내가 가령 한 방울 누었다고 해도,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 아니 장소가 나뻐던 것이다. 그럼에 틀림이 없다.¹⁵⁾

위의 텍스트에 나타난 ‘나’의 야뇨증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실수로, 유치장이라는 공간 탓에 생긴 증세로 치부하고 있다. 대개의 「야뇨증은 정신적인 실패에 의한 증상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정서적 긴장, 부모의 무관심, 공포 및 과잉보호에 대한 반발로서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¹⁶⁾이다. 김문집의 첫 작품 『아리랑 고개』와 본고에서 다루게 될 『여자조리와 내 청춘』에서 조선인 청년 ‘나’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나’에게 정신적 빈곤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로 조선전래의 비상이라는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부재, 모성에 기갈증(飢渴症)은 ‘나’가 여성의 ‘탈’에 집착하는 도모증이라든지, 야뇨증, 여성의 ‘조리’를 훔쳐서 모으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낳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일찍 어머니를 잃은 대신에 예를 들면 유아 때는 유모, 보모, 선생, 아이를 보는 사람 네 명의 인간이 나 한사람에게 전속되어 집을 나올 때까지의 나는 지나치게 보호 받은 자식이었다.¹⁷⁾

나의 어머니는 (중략) 비상이라고 하는 필시 비소 주성분으로 조제한 조선 고유의 극약을 마시고 결국 이 세상에서 자살한 것이다.¹⁸⁾

위의 텍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부재로 어머니 자리에 ‘네 명의 인간’이라고 묘사된 여성들이 대체되어 지나친 보호를 받았음에도 그 누구도 어머니 자리를 대신 메워주지 못했다. 즉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형식적인 보호만을 받았던 것이다. 김문집은 1909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일본 와세다중학(早稻田中學), 마쓰야마 고교(松山高等學校), 동경제대(東京帝大) 문과를 중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성장기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고 문학 수업도 일본 문학을 통해서였다. 홍성암은 「그의 문학적 생애는 그 자신이 진술한 「東京春秋期」(조광, 5권 8호)에서 살필 수 있는데 김문집의 가정은 부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모와의 불화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했고 동경 유학 시절에는 마작집 식객, 연필 행사 등의 어려움도 겪어야

15) 金文輯(1958)『ありらん峠』「女草履と僕の青春」第二書房, pp.68-69

16) 김영철(2002)『어린이 건강관리』덕수출판사, p.218

17) 주 15와 동일, p.71

18) 주 15와 동일, pp.74-75

했다.]¹⁹⁾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김문집에게 어머니의 부재가 미친 문학적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부재는 작품 속에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페티시즘 형태로 여성의 신체 일부, 혹은 그와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 이상적(異常的)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페티시스트에 대해 배수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페티시스트는 여성의 결핍을 부인하면서도 그런 결핍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이것은 자아의 분열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나’와 같은 자아의 분열은 페티시스트의 심리적인 방어기제인 ‘부인’ 즉 부정을 통해 상호모순된 형태로 양면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더욱이 『여자 조리와 내 청춘』의 ‘나’는 전형적인 페티시스트로 현실을 거절하면서 발생하는 정신병과 욕망을 억압해서 생기는 신경증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²⁰⁾

4.2 저널리즘, 저널리스트 비판의식에 표상된 ‘나’의 집착

‘나는 사장 이글만(イーグルマン)의 명령으로 요리가게 현관의 칸막이 모양을 조사 연구하러 갔다가 무코지마(向島)의 어느 요정(料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비교적 넓은 현관에 한결레의 여자 조리를 발견한다. 일단 욕구를 눌렀지만 ‘나는 그 조리를 훔쳐 마실 줄도 모르는 맥주를 마시고 휘청휘청 걷던 중에 경찰에 잡혀 유치장으로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회상한다. 비속한 웃음소리를 주고받는 사회부 기자들의 손에서 「여자 조리 전문의 변태치한을 잡아라!」²¹⁾ 「무코지마의 치한, 실은 어느 영자신문의 촉탁」²²⁾이라는 다양한 제목으로 몇 백대의 윤전기에 의해 ‘나’를 이용한 특종감으로 만들지도 모르는 불안과 함께 ‘나’는 자신의 여자 조리를 훔치는 행위에 대해 세상에 알려지는 것만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석간의 진수성찬을 주기 위해 종일 비속한 웃음소리를 주고받는 사회부기자의 손에서 손으로, 인텔리용의 특종으로서 요즘 성행한 그 뉴스 가치를 경쟁에 열 올리고 있는 중이 아닌가. 사회부기자들의 저널리즘! 살인의 저널리스트들! (중략) 윤전기! 아아 세기의 폭군! 폭군들! 너희들은 나를 치한으로 각인 시킬 셈인가? 치한? 아니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죽어버려야만 한다. 바다를 넘어 아, 조선의 아버지가 불쌍하다. 아니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²³⁾

19) 홍성암(1994)「金文輯 批評 研究 -『批評文學』을 중심으로-」『동대논집』제24집, p.45참조

20)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2003)『페미니즘과 정신분석』여이연, pp.129-130, 참조

21) 주 15와 동일, p.70

22) 주 15와 동일, p.70

23) 주 15와 동일, p.71

김문집 역시 자신이 비평가로 자처하기 보다는 저널리스트로 자처하였고 자신의 비평도 저널리스트로서의 시평적(時評的) 범위에 머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²⁴⁾ 1936년의 소위 ‘일장기 말살 사건’을 거치면서 (조선) <중앙일보>가 폐간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심의 저널리즘 판도가 연출됨으로써 다시금 이원 대립 구도라는 단순화의 축도 경향을 야기하게 된다. 이 축도의 한 복판에서 조선일보를 거점으로 한 최재서와 동아일보를 거점으로 한 김문집이라는 전형적인 양자 대결 구도가 빚어졌던 상황을 김문집은 당시 저널리스트로서의 상당한 부담감, 독자 중심 체제의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의식을 어느 정도 이 문맥 속에서 확인 할 수 있다.²⁵⁾

4.3 ‘여자 조리’에 대한 ‘나’의 집착

4.3.1 용희(蓉姬)

여자학습원(女子學習院)에 다니고 있는 경성의 Y백작가의 딸 용희는 작품 속에서 당시 메지로(目白)의 여자대학의 학생이었던 언니와 경성의 이화여전(梨花女專)을 나온 그녀의 보모를 좌우로 해서, 어떤 양식도 사용하지 않은 동서혼합취미(東西混合趣味)의 모습을 한 여성으로 「용희도 ‘나’도 슬플 때에는 모국어보다는 일본어 쪽이 즐거웠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²⁶⁾하였다는 텍스트를 미루어 조선인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어느 책에서 읽은 옛날 중국에 자신의 몸에서 ‘이(風)’라고 하는 부드러운 벌레를 잡아 너무 흥미가 생겨서 맛있게 먹어버린 사람 이야기를 용희에게 하면서 ‘나’는 「그 ‘이’를 잡기 위해 가끔 거울에 비추어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기에 용희! 당신에게 이가 있다면 미안하지만 지금 나에게 한 마리 먹여주지 않을까요?」²⁷⁾라며 부탁을 한다.

용희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조선옷을 입은 모습도 양복을 입은 모습도 아주 예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일본 옷을 입은 모습의 당신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부디 예정 날인 9월 15일에는 눈이 부실 일본풍의 당신을 동경 역에서 맞이할 행복한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중략) 당신에게 일본 옷 한 벌을 보낼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4) 홍성암(1994)「金文輯 批評 研究-『批評文學』을 중심으로-」『동대논집』제24집, p.44

25) 한형구(2011)「한국 탐미(주의) 비평의 한 사례 -1930년대 후반 김문집 비평의 문단 위상과 그 미적 이론의 형성 배경-」어문논집 제47집, p.347참조

26) 주 15와 동일, p.77

27) 주 15와 동일, p.77

그 대신 아름답게 치장을 한 당신을 꽃다발처럼 만들 수 있는 신발을 한 켤레 보내고 싶습니다.
부디 나의 마음을 받아 주세요.²⁸⁾

위의 텍스트는 ‘나’가 그녀를 향한 최초이자 최후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용희에게 보낸 편지내용이다. 하지만 용희의 회신은 단호한 거절과 ‘나’에게 받은 조리를 돌려주는 것이었다.

나는 아주 당신이 싫다. 부디 이런 유치한 것은 보내지 말아 주세요. 만약 앞으로 편지 따위를 보낸다면 그대로 두고, 동경에서 전람회를 열어 많은 친구를 부르겠습니다.²⁹⁾

‘나’는 편지를 읽으면서 일전에 ‘이’와 관련했던 일이 기분 나빴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편지를 보낼 때와는 달리 용희보다도 더 친절한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쉽게 체념한다. 그리고 용희에게서 돌아온 조리를 침대에 던져 버린 그 때 「아! 이다! 이다! 이것이 이라고 하는 맛있는 별레다!」³⁰⁾라고 무아몽중(無我夢中) 외치면서 위대한 곤충 이를 씹기 시작한다. 이 기억이 다이쇼(大正) 중기의 일로 조리 한 켤레 18엔, 물가가 비싼 시기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나’에게 조리 선물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다시 되돌아온 조리로서 첫 사랑은 허무하게 좌절되어 끝나버린 ‘나’의 회상이다.

4.3.2 제2의 연인(第二の恋人)

‘나’가 여자 조리에 흥미를 가지고 모으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 이루지 못한 용희와의 사랑에 이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이며 「내가 여자 조리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중략) 제2의 연인 결국 이 사람과도 헤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시작한 것이다」³¹⁾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자 조리 수집증은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난 이후 생긴 증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당시 ‘나’는 스스로를 유아독존적인 생활과 책상 위에 피계한 사회주의 그리고 계모와의 불화합 이 세 박자가 4분 5열이 일어난 자신의 재난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러한 자신의 일상사가 결국 ‘여자 조리’에 대한 집착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이후 ‘나’는 저능집회소라고 비유한 대학교를 그만 두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28) 주 15와 동일, p.85

29) 주 15와 동일, p.84

30) 주 15와 동일, p.85

31) 주 15와 동일, p.88

나누어서 자신이 독일이나 프랑스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으로 인해 아버지와 의절을 하게 된다. ‘나’의 제2의 연인은 용희류의 여자 즉 조선인 여성이 아니며 저명한 일본인 화가의 딸 즉 일본인 여성으로 구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작품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용희와의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쉽게 포기했던 회상과는 달리, 제2의 연인에 대한 회상은 소문이라도 나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조심스러운 고백을 엿볼 수 있다. ‘나’는 교토산 조리 두 켈레를 제2의 연인에게 선물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아주 중대한 오해를 불러와 조리 두 켈레는 용희에게 보냈던 조리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제2연인의 이름은 물론이고 선물한 조리가 왜 중대한 오해를 불러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품에는 전혀 설명 되어 있지 않다.

나는 돌아온 부정한 딸을 벌하는 것처럼 그날 밤 그 방대한 짐을 교회당안의 광장으로 가져가 신문지와 숯을 산과 같이 쌓아 이것을 화장해 버렸지만 아아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동성애에 빠진 이 두 조의 여자가 서로 안고 타고 있는 아름답고도 잔인한 착각인 나의 망막을 점령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즉시 나는 타오르는 불을 밟아 끄고 양동으로 물을 퍼 와서 그 불 속의 증기가 올랐지만, 그때는 이미 4인의 아름다운 여자는 홀륭하게 타 버렸던 것이다.³²⁾

위의 텍스트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1854~1900)와의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다.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 10월 아일랜드 출신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을 표어로 하는 탐미주의를 주창하였고 지도자가 되었다. 1985년 미성년자와 동성연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결과 유죄판결을 받고 2년 동안 레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참회록 『옥중기(獄中記)』(1897)를 집필하였다. 특히 『여자 조리와 내 청춘』에서 주인공 ‘나’가 유치장에서의 경험을 시작으로 작품이 시작된다는 점과 위의 텍스트 불에 탄 여자 조리 두 켈레를 마치 동성애에 빠진 네 명의 사람으로 묘사한 부분은 오스카 와일드의 영향관계에서 일부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한형구 역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생애는 김문집의 생애를 통해 늘 거울과 같은 존재로 비추어졌을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여자 조리는 ‘나’에게 있어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심미관(審美觀)의 대상이 되어 스스로를 여자 조리 매니아(mania)라고 자칭하면서 미지의 여자 즉 조리를 연모하여 3, 4일 밤잠을 자지 않고, 먹지 않고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다. 도쿄의 「고지마치(麹町) 부잣집의 현관에 몰래 들어가 놓여있는 조리를 훔쳐 몽유병환자처럼 도망친 것이 여자 조리를 모으는 것을 시작했다」³³⁾고 하는 것이 ‘나’의 조리 도둑의 첫 기억이다. 두 번째는

32) 주 15와 동일, p.89

「교바시(京橋)의 소문난 아름다운 아가씨로 담배 가게 딸의 조리를 훔쳤지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돌려주고 왔기 때문에 죄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³⁴⁾면서 두 번째의 도벽(盜癖)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조리의 도벽 행위에 대한 기억은 ‘나’의 먼 과거를 회상하는 형태로 밝혀진다. 하지만 세 번째는 바로 작품의 첫 시작에서 ‘나’가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 원인과도 연결되는 일로, 어제라는 시점으로 이어진다. ‘나’는 사장 잉글만(イーグルマン)의 명령에 따라 무코지마 화류마을을 탐방하게 되었는데 민완가(癩腕家)인 사장 잉글만의 일로 ‘병풍에 있어 아마노테와 시타마치와의 비교연구(屏風に於ける山の手と下町との比較研究)’라는 것이 반영된 과제이다. ‘나’는 색거리의 여자 조리를 볼 수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무코지마 변두리까지 나가서 매일 이름 있는 요정 유곽들을 돌아다니며 허영 가득한 세로로 새긴 특제의 명함을 뿌리고 다니던, 바로 어제의 일이다. 그것은 ‘나’의 환영이 어느 장소에 멈추게 했다. 그것은 E의 집 현관에서 보고 온 여자 조리였던 것이다. ‘나’는 냄새, 색의 조화, 그리고 감촉에 뇌쇄되어 현관에 서서 조리에 열중한 자신을 발견한다. 그것이 죄든 아니든 ‘나’는 그 조리를 갖고 싶어 어떻게 할까 계속 초조해하며 조리를 사람의 표정과 피부촉감, 숨 막히는 호흡으로 스스로 진정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조리가 갑자기 오늘 떠올라 ‘나’는 이성과 비판력을 잃고 E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있다! 있다! 조리는 아직 거기에 그대로 나란히 있었다.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나는 그만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손등으로 살짝 눈을 훑치고 자세히 보았지만 오오! 곱고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가희(歌姬)가 ‘자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미친 듯이 울며 양손을 들고 나의 몸에 다가 오는 것이 아닌가!³⁵⁾

‘나’는 강도처럼 앓은 자세로 마치 경찰관 입회 아래 유괴된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얼굴 모습으로 상의의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봉투와 부드러운 비단 끈을 꺼내 조리를 겹쳐 훌륭한 하나의 수제를 제조한 듯이 도벽에 성공한다. 세 번째 조리 도벽에 성공한 ‘나’는 「이것이 내가 조리를 예를 들어 말한다면 강간한 세 켄레 켄」라고 하면서 조리 훔치는 일을 강간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조리를 여자들로 비유시켜 서양 장롱에 넣기 전에 ‘나’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신이 정한 규칙과 예의에 따라 그녀의 이름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33) 주 15와 동일, p.90

34) 주 15와 동일, p.94

35) 주 15와 동일, p.93

‘나’는 이사코의 두 뺨에 키스를 퍼부었다. 이사코 그렇게 다시 고쳐 부르고 나는 서양 장롱에 열쇠를 채웠다. 오오! 맑은 하늘의 기라성과 같은 나의 연인들이여! 좋은 친구가 또 한명 생겼다 (중략) ‘나’는 서양식 장롱을 유리 가게에 부탁하여 밑에서부터 천장까지 세 치(三寸)내외의 간격을 두고 모두 합쳐 18장을 주었다. 이것이 여자 조리의 집합체 대전당(大殿堂)이다.³⁶⁾

특이한 것은 ‘나’는 조리를 결코 공짜와 같은 싼 가격으로 해서 사는 것만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도벽으로 모은 조리에 가장 만족하는 것이며 향락의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나’에게 여자 조리는 요괴이기도 한 존재이며, 해를 거듭함에 따라 요염한 여인의 모습으로 「허리를 흔들며 축축하게 손질을 하고 있는 여인, 「사람을 초조하게 하는 이상한 조물(造物)」이라고 여긴다. 또한 ‘나’에게 조리에 대한 의식은 점점 진화해 머리카락, 허리, 허영, 요염, 향수, 립스틱, 생머리, 사디즘, 동경, 희열,センチ멘탈리즘이 담겨 있는 즉 여자의 속성이 모두 반영된 여성의 모형물이 된다.

나는 귀에 거친 박수소리가 삼페인의 거품소리가 저쪽에서 들렸다. (중략) 기계 찬장처럼 유리판을 밑에서부터 천장까지 3척 내외의 간격을 두고 모두 합쳐 18장을 주었다. 이것이 여자 조리의 대전당이다. 지상의 요조숙녀들이 이 일당에 숨 쉬고 있는 것이다. 미치코, 유즈, 미에코, 타메코, 토코, (중략) 대충 눈으로 이정도의 여자들이 웃어 준다. 아름답게 호탕한 나의 연인들이여 자네들은 내가 매주 얼마나 정중하게 자네들의 피부의 손질을 하고 있는 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네들에게 사랑에 빠져있는지를 알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의 축제는 아직 무상의 자네들의 희열이 아닌가! (중략) 화려한 연인들 장식되어 있는 조리들에게 새로 들어온 이사코를 소개하며 6층 째 칸의 중간정도의 자리를 헤치고 수줍어하는 이사코를 재웠다.³⁷⁾

위의 텍스트를 통해 ‘나’의 정신 이상화적인 온전히 자신만의 환상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여자가 갖는 매력의 전부를 동원하여 투영시킨 조리의 향연에 철저한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여자 조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환상 속에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부재, 어머니에 대한 사랑 기갈증은 결국 ‘나’가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여자에 대한 정상적이지 못한 집착으로 이어졌고, 용희에 이어 제2의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만큼 특정인물이라기 보다 모든 여성을 아우르는 대체표현으로 그 어떤 여성으로도 ‘나’의 탐미적 욕망, 욕구를 잠재울 수 없는 집착증을 낳게 했다고 보인다.

36) 주 15와 동일, pp.94-95

37) 주 15와 동일, p.95

5. 결론

김문집의 『여자 조리와 내 청춘』 고찰이라는 주제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조리에 집착하고 있는 중심인물 ‘나’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문집은 조선인이면서 조선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일본에서의 수학경험을 바탕으로 모국어보다도 일본어가 능숙하였음에도 반도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일본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외로움은 작품 속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집착 증세와 같은 비정상적인 소재 채택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모로 상식적 삶을 거부했던 김문집 삶 전체의 충동적 면모로 보더라도 반복되는 과렴치법의 행적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 혹은 수수께끼와 같은 상식 외의 면모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당연하다. 다만 그의 작품 『여자 조리와 내 청춘』을 전체적으로 해독하면서 이해하고자 할 때, 단서가 될 만한 흔적들을 찾자면, 생후 백 여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모진 모성에 기갈(飢渴)의 조건에 사로잡히게 된 ‘나는 야노증과 페티시즘(Fetishism)과 같은 변태 성욕에 시달리게 돼, 급기야 여성의 조리를 흠쳐 모으는 비정상적이고 이상 행동을 선보이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한 달에 한번 ‘나는 자신이 모아놓은 여자 조리가 진열되어 있는 대전당을 보며 스스로 망상에 빠져 환상, 환청으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자신만의 아파트라는 공간 안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자신만의 공간, 세계에서 벗어나 도심으로 나와서 하이힐을 신은 일상의 공간 동경행의 전차 안에서 느끼는 동경에 대해서는 몇 백만의 사생활이 있고, 비밀이 있고, 그 속의 생활에는 고통과 낭만이 있다고 한다. 그 안에서 ‘나는 아이러니하게 선로의 지붕들의 전망에 문득 바다 건너편 고향의 시장을 떠올리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 ‘나는 조선을 비유한 용희에게도, 일본을 비유한 제2의 연인에게도 그 어느 쪽에도 따뜻하게 융화되지 못하고 이에 좌절하고 허물어진 인생을 단면적으로 표현한 부분인지도 모른다. 한형구의 지적대로 김문집은 예술가적 취향과 추구의 도정 속에서 모국의 문단, 평단에서 자신의 일차 언어인 일본어 능력에 비해 훨씬 미달하는 조선어의 서툰 서술 능력을 가지고 탐미주의자로서의 비평적 행적을 구축했다는 것은 생애 전체로 봐서 하나의 에피소드의 막간극이었다고 말해도 좋을지도 모른다.

【參考文獻】

- 김영철(2002) 『어린이 건강관리』 덕수출판사
 김윤식(2003) 『일제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 김재용(2004)『협력과 저항』소명출판
金文輯(1958)『ありらん峠』第二書房
金文輯(1938)『批評文學』靑色紙社
구수경(2003)『1930년대 소설의 서사기법과 근대성』국학자료원
식민지 일본어문학.문화연구회(2011)『제국일본의 이동과 동아시아 식민지문학 1,2』문
신윤주(2014)「김문집의 『아리랑 고개(ありらん峠)』 고찰-‘나(私)’의 도모증(盜毛症)을 중심으로-」『일본근대
학연구』제43집
정병호(2006)「20세기 초기 일본의 제국주의와 한국 내 <일본문학>의 형성 연구 -잡지『조선(朝鮮,1908-11)의
「문예」란을 중심으로-」『日本語文學』第37輯
최재서 저, 이해진 옮김(2012)『최재서 소설집』소명출판
한형구(2011)「한국 탐미(주의) 비평의 한 사례 -1930년대 후반 김문집 비평의 문단 위상과 그 미적 이론의
형성 배경-」『어문논집』제47집
홍성암(1994)「金文輯 批評 研究 -『批評文學』을 중심으로-」『동대논집』제24집
황경(2012)「김문집의 일본어소설 연구-『아리랑 고개』를 중심으로-」『한민족문화연구』제39집

논문투고일 : 2014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9일

 <要旨>

金文輯의 『여자 조리와 내 청년 (女草履と僕の青春)』 고찰

- ‘나(私)’의 여자 조리(草履) 집착증을 중심으로 -

논자는 김문집의 『여자 조리와 내 청년』 고찰이라는 주제로 여자 조리에 집착하고 있는 중심인물 ‘나’를 분석하였다. 김문집은 조선인이면서 조선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일본에서의 수학경험을 바탕으로 모국어보다도 일본어가 능숙하였음에도 반도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일본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외로움은 작품 속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집착 증세와 같은 비정상적인 소재 채택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생후 백 여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모친 모성에 기갈(飢渴)의 조건에 사로잡히게 된 ‘나’는 야뇨증과 페티시즘(Fetishism)과 같은 변태 성욕에 시달리게 돼, 급기야 여성의 조리를 훔쳐 모으는 비정상적이고 이상 행동을 선보이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나’는 자신만의 공간, 세계에서 벗어나 도심으로 나와서 하이힐을 신은 일상의 공간 동경행의 전차 안에서 느끼는 동경에 대해서는 몇 백만의 사생활이 있고, 비밀이 있고, 그 속의 생활에는 고통과 낭만이 있다고 한다. 그 안에서 ‘나’는 아이러니하게 선로의 자봉들의 전망에 문득 바다 건너편 고향의 시장을 떠올리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 ‘나’는 조선을 비유한 용희에게도, 일본을 비유한 제2의 연인에게도 그 어느 쪽에도 따뜻하게 융화되지 못하고 이에 좌절하고 허물어진 인생을 단면적으로 표현한 부분인지도 모른다.

 A Study on Kim Mun-Jip's *Zori Sandals for Women and My Youth*

-View from Sticking to Zori Sandals for Women of ‘I’-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main character, ‘I’, who is obsessed over Zori Sandals for Women in Kim Mun-Jip's *Zori Sandals for Women and My Youth*. Even if the writer, Kim Mun-Jip was a person of Chosun Dynasty, he was an outsider in Chosun. Also, he was better at Japanese than Korean as the mother tongue thanks to learning in Japan, however, he didn't achieve recognition in Japan because he came from Chosun. It is likely that his some works reveal his own loneliness as abnormal obsession symptoms and materials for writing. Losing his mother around the hundredth day after birth, he might suffer from hunger for maternal love, and then this seems to lead to abnormal sexuality such as Fetishism and nocturnal enuresis, following unnatural and strange nonideal behavior like stealing and collecting Zori sandals for women. After leaving his own space and world and entering downtown, on the train bound for Tokyo as a routine space wearing high-heels, ‘I’ mutters there are private lives of hundreds of people, secrets, pain and romantic parts in the very place. Ironically, for ‘I’, the roofs of the railroad excite nostalgia, reminding him of the hometown market beyond the sea. ‘I’ as a figure seems to be a collapsed and frustrated man, being integrated with neither Yong Hee representing Chosun nor his second lover hinting Japan.